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인식

Familism of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한 경 순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
Prof. : Kyoung-Soon, Han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sm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par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ism on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parents of the undergraduates, analyzed the differences of it. For this, the subjects were 711 undergraduates living in Kwangju. Statistical analysis used were one-way ANOVA, Duncan-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ale undergraduates' familism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parents related to sex. 2) The familis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major, and household income. Parent supporting consciousness of th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grade, and major. 3) The differences between familism and parents supporting consciousness were significant. The higher the undergraduates' familism was, the higher the undergraduates'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parent was. In particular, for male, familism was shown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predicting their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parents.

I.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노인 인구를 증가시켜 노령화를 촉진시켰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부분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 뿐만아니라 직업생활에서 물러나고 가사결정권을 물려주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상실한 노인은 스스로가 사회나 가정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소외감에 빠져들기 쉬우며, 건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가 쉽다. 이 때문에 노인은 누군가의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을 갖고 노인을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孝)이념에 뿌리를 둔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관행이었다(지교현, 1989). 하지만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되어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더욱 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내면적인 가족의 변화 역시 가족을 위주로 하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은 쇠퇴하고 개인을 위한 가족이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노부모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인 집합주의적 가족주의에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개인 중심주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 세대간에 가족주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노후부양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최정혜, 1997). 또한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켰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부모 부양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의 부양과 서로 도와가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서,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사적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신숙·신효식, 1988). 앞으로 정부가 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느정도 책임을 갖고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지만, 가족은 복지추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집단이며, 중요한 생활의 장이어서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가족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배하는 윤리 중의 하나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서 개별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함을, 특히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함을 지시한다. 선행연구(김송애 외, 1991; 최정혜, 1997; 한은주 외, 1994)에서도 높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닐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분적으로 우리생활에서 가치결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아래 삶을 형성해 가고 있어 부분적인 변화는 보이지만 계속해서 주요 규범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자라난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은 미래사회에 노부모를 부양할 주인공이므로 이들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며, 실제 이를 다룬 연구가 몇 편 있다(김송애 외, 1991; 최정혜, 1997; 한은주 외, 1994).

선행연구에서는 성(性)을 하나의 변인으로 취급하여 약간 언급했을 뿐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성별에 따른 부모부양의식에 가족주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한편도 없다.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부계사회의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서 그러한 경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가족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밝힌 선행연구(Scanzoni, 1975)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근대적 경향을 나타내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의식이 더 빠른 속도로 전통성을 탈피해 가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여성은 지배적인 남성 집단에 비해 종속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서 더 열등감을 경험하는데 반해, 남성은 지금 그대로의 구조 즉 전통적인 성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녀간에 의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성(性)에 따라서도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이 다를 것이며,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도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경향과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그 영향력을 성별로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전통문화 규범의 수용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문화 형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주의 가치관

임희섭(1986)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중심적 특성은 집합주의의 가치지향으로서 가족, 지역 공동체, 국가공동체 등 여러 수준의 집합체 가운데에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합체로 강조되는 가족주의적 집합주의라고 했다. 이렇듯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인간관계의 규범으로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가족의 이익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 까지 확산되는 것이라고(옥선화, 1989)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옥선화, 1989; 최정혜, 1997; 한은주·김태현, 1994)에서도 가족주의의 가치관을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의미로 보았다. 즉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가족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의미한다.

가족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김송애·조병은, 1991; 김일명·김명자, 1989; 옥선화, 1989; 최정혜, 1997; 한은주·김태현, 1994 등)를 보면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나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족관계의 영역별로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주의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근대에 따른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에서 근

대적으로, 즉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에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한다.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은(1987)은 남성이 보다 보수적이라고 하였다. 한남제(1989)는 부부에 대한 차별의식에서는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전통적 가치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형제의 서열의식에서는 여성들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반적으로 높을수록 집합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옥선화, 1989; 한남제, 1989).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일명·김명자, 1989; 옥선화, 1989; 한남제, 1989). 한남제(1989)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일수록 부부의 차별의식이 높았고, 가문의 계승과 혈연의식과 효도 의식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직이 전통적인 생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높다고 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옥선화, 1989).

2. 부모부양인식

부양이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는 과정이며, 한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서적, 인식적, 물질적 도움을 얻는 것이다. 즉 노인부양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의미한다(이신숙 외, 1991).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자원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성인자녀의 의무에 관련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한은주 외, 1997).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부양이유, 부양의무감, 부모 노후의 책임

의식 등의 형태를 보인다. 윤종주(1982)는 성인자녀들이 부모부양의 이유를 그들의 부모이므로, 전통적 규범 내지 관습이므로, 자녀를 양육했으므로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송현애(1986)는 자녀로서의 의무감과 어머니와의 갈등이 현재의 부양행동 및 미래의 부양참여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통적 윤리관인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주력하고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미래 부양행동을 위한 계획차원에서 보다는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효의식에 근거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박재간, 1989; 성규탁, 1989). 또한 부양행동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부양의식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다(이신숙 외, 1991; 최정혜, 1997)

사회의 부양의식의 변화는 세대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육구와 이용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게 하므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의식 및 태도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이가옥 외, 1990). 근래에 와서 노부모와의 동거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으며, 장남 이외에 차남과의 동거 또는 딸에 의한 동거율이 늘어나고,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김태현, 1994), 전반적으로 노부모에 의한 기혼자녀의 부양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애 외, 1991; 이가옥 외, 1990).

부모부양의식은 교육수준, 연령, 성별, 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송애 외, 1991; 임종권, 1987).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임인혜, 198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 부양의식에서는 고학년일수록 부양의식과 부양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최정혜, 1997; 허훈, 1988). 성별 변인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고(이희자 외 1996; 최정혜, 1997), 서구의 결과(Gray R. Lee et al., 1993; Rossi & Rossi, 1990; Walker et al., 1989)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부양

책임의식이 더 높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양의무감은 낮았다(김송애 외, 1991).

3.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일반적으로 부모세대는 보수적이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자녀 세대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어 구세대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경시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상반된 가치관 때문에 피차 세대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박재간, 1985).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세대간의 가치차이를 설명하였으며, 부계가족의 영속 또는 부모공경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모부양의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의 정적 관계를 밝혀냈다. 단지 부모부양의식의 측정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무감, 부양행동간의 관계를 시가와 친가로 나누어 살펴본 김송애 등(1991)은 시가와 친가 모두에서 기혼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무감도 높았으며, 이는 다시 부양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최정혜, 1997; 한은주 외, 1997)과 부모부양부담도(한은주 외, 199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은 어떠한가, 성(性)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

- 3)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 부모부양의식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족주의 가치관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가족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고 가족집단에 대한 태도가 친척집단에 까지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옥선화, 1986, 1989; 한은주·김태현, 1994)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가족주의 가치관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이다. 10문항을 요인분석하였으나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가 낮아 영역별 분석은 하지 않고 전체 가족주의 가치관점수만을 사용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69이었다.

2) 부모부양의식

성규탁(1989, 1994, 1995)이 효척도로 사용한 13문항 가운데 10문항을 선택하여 요인분석하여 얻은 세 하위영역 보은/도리 3문항, 가족영속/화합 3문항, 동정/보은 4문항을 부모부양의식척도로 사용하였다(표 1).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이다. 부모부양이념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효이기 때문에(성규탁, 1994) 효행동기가 곧 부모를 부양하는 이유가 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부양의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이유에 기초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부양의식을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각각 .70, .69, .77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998년 12월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750부를 배부하였으며, 분석에는 711부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구하였고,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과

<표 1> 부모부양의식의 요인분석

문항내용	요인 1 보은/도리	요인 2 가족영속/화합	요인 3 동정/보은
. 부모 부양은 존경을 표하는 것	-0.12	0.38	0.58
. 부모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이행	0.11	0.17	0.79
.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 것	0.25	-0.04	0.76
.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영속도모	-0.08	0.69	0.22
.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원화합	-0.14	0.83	0.28
. 부모를 중심으로 이웃과 화목	0.11	0.77	0.08
. 늙고 병든 부모 동정	0.67	-0.07	0.02
. 종교적 교의	0.79	0.01	-0.02
. 부모의 재산상속함으로 부양	0.77	0.18	0.08
. 가족의 대외적인 체면 유지때문	0.79	0.08	0.02
고 유 치	2.62	2.38	1.08
분 산(%)	26	24	11
누적분산(%)	26	50	61
Cronbach' α	.70	.69	.77

부모부양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어슨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남학생	여학생
학년	1학년	110(34.5)	105(27.8)
	2학년	117(36.7)	131(34.7)
	3학년	54(16.9)	83(22.0)
	4학년	38(11.9)	59(15.6)
	계	319(100)	378(100)
전공	인문계열	59(18.2)	109(28.4)
	자연계열	192(59.1)	190(49.5)
	예체능계열	74(22.8)	85(22.1)
	계	325(100)	384(100)
가정소득	100만원미만	50(16.0)	34(10.1)
	100 - 149	66(21.2)	65(19.3)
	150 - 199	84(26.9)	93(27.6)
	200 - 299	67(21.5)	90(26.7)
	300만원이상	45(14.4)	55(16.3)
계	312(100)	337(100)	
연령	20세 이하	117(39.9)	176(60.1)
	21세	50(31.3)	110(68.8)
	22세	36(36.4)	63(63.4)
	23세 이상	123(78.3)	34(21.7)
	계	326(100)	383(100)
형제수	1명	17(5.2)	19(4.9)
	2명	110(35.6)	96(25.0)
	3명 이상	200(61.2)	269(70.1)
	계	327(100)	384(100)
종교	기독교	87(27.1)	115(30.2)
	천주교	37(11.5)	67(17.6)
	불교	53(16.5)	41(10.8)
	기타	144(44.9)	158(41.5)
	계	321(100)	381(100)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의 일반적인 경향 및 성별 차이

1) 가족주의 가치관의 일반적인 경향 및 성별 차이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 점수는 남자 2.80, 여자 2.71로 비교적 낮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보였다(표 3). 이는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정혜, 1997)에서 2.65점과 비교하면 약간 높으나, 한은주 등(1994)에서 며느리(2.91)와 시어머니(3.3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아서 가족중심의 집합주의에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가치성향이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재은, 1987; 한남제, 1989)의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며, 부계가족원리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가부장권(家父長權)을 지향하는 보수적인 가치성향을 나타내었다.

2) 부모부양의식의 일반적인 경향 및 성별 차이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 점수는 남자 2.84, 2.86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동정/보상에서 부양점수가 가장 낮으며(남녀 모두 2.09), 보은/도리는 남자 3.18, 여자 3.19이며, 가족영속/화합은 남자 3.50, 여자 3.54로 높은 부양의식을 나타내었다.

부모부양의식은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남녀 모두 가족영속/화합 의식이 가장 높고, 동정/보상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를

<표 3> 가족주의 가치관의 일반적인 경향 및 성별 차이

	남성		여성		t 값
	M	SD	M	SD	
가족주의 가치관	2.80	0.48	2.71	0.45	2.26*

*p < .05

〈표 4〉 부모부양의식의 일반적인 경향 및 성별차이

하위 내용	남 성		여 성		t 값
	M	SD	M	SD	
보은/도리	3.18	0.81	3.19	0.70	-0.10
가족영속/화합	3.50	0.76	3.54	0.66	-0.66
동정/보상	2.09	0.72	2.09	0.68	-0.13
계	2.84	0.50	2.86	0.45	-0.42

부양하는 이유를 근거로 한 부양의식은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녀대학생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유로 가족의 영속과 혈연집단의 화합을 위해 서라는데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도리이므로에 높게 반응하였다. 부모를 동정해서라든가 재산상속이나 체면, 종교적 의를 위한 보상을 기대한 부모부양에는 낮게 반응하였다.

성에 따른 선행연구의 결과 역시 일치하지 않아 국내 연구(이회자 외, 1996; 최정혜, 1997)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 연구(Gray R. Lee et al., 1993; Rossi & Rossi, 1990; Walker et al., 1989)에서는 딸이 아들보다 부모부양책임의식이 더 높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는 국내, 국외 모두 부양책임에 초점을 두어 부모부양의식을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부모부양 이유 또는 부양동기에 초점을 두어 부모부양의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과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 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국내 선행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도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로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남녀간의 차이가 있으나 부모부양이유 또는 부양동기에 대한 부양의식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전공계열, 가정소득이었다(표 5).

예, 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높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서 예, 체능계열 학생이 가족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 가치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학년과 상관없이 비슷한 가족주의 가치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3학년에서 보다 높은 가족주의 가치를 나타내었다. 가정소득 역시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여학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150만원-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낮은 가족주의 가치를 보였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전공계열만이 남녀 모두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학년과 가정소득은 여자대학생에게만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부양의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연령, 학년, 전공계열이었다(표 6).

남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부모부양의식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여학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아져서 그 가운데 23세 이상의 집단이 부모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은 연령과 상관없이 일정한 부모부양의식을 지니는데 반해 여학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은 학년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학생에서만 유의한 차이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남 자			여 자		
		M	F	D	M	F	D
연 령	20세이하	2.74			2.69		
	21세	2.74			2.77		
	22세	2.84	1.74		2.65	1.78	
	23세이상	2.86			2.83		
학 년	1 학년	2.79			2.64		B
	2 학년	2.76			2.69		B
	3 학년	2.83	0.81		2.83	3.03*	A
	4 학년	2.89			2.75		AB
전 공	인문사회계	2.66		B	2.71		B
	자연계	2.75	13.27***	B	2.67	4.11***	B
	예, 체능계	3.03		A	2.84		A
형제수	1 명	2.80			2.60		
	2 명	2.77	0.34		2.78	1.70	
	3 명이상	2.81			2.71		
가정소득	100만원미만	2.76			2.77		A
	100 - 149	2.84			2.75		A
	150 - 199	2.77	0.48		2.58	3.37**	B
	200 - 299	2.79			2.76		A
	300만원이상	2.86			2.84		A

*p < .05 **p < .01 ***p < .001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부양의식

		남 자			여 자		
		M	F	D	M	F	D
연 령	20세이하	2.80			2.78		B
	21세	2.88			2.93		AB
	22세	2.85	0.50		2.65	4.26**	AB
	23세이상	2.87			3.02		A
학 년	1 학년	2.81			2.79		B
	2 학년	2.86			2.76		B
	3 학년	2.82	0.22		2.98	7.63***	A
	4 학년	2.86			3.01		A
전 공	인문사회계	2.74		B	2.83		
	자연계	2.79	8.21***	B	2.68	0.53	
	예, 체능계	3.04		A	2.84		
형제수	1 명	2.80			2.87		
	2 명	2.84	0.06		2.82	0.39	
	3 명이상	2.85			2.87		
가정소득	100만원미만	2.82			2.89		
	100 - 149	2.92			2.90		
	150 - 199	2.79	0.66		2.82	0.50	
	200 - 299	2.85			2.82		
	300만원이상	2.82			2.89		

p < .01 *p < .001

가 발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부모부양의식이 더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김송애 외, 1991; 임종권, 1987)에서도 고학년일수록 부모부양의식과 부양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연령과 학년에서의 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나이나 학년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모부양의식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저학년때는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낮다가 나이가 먹어 감에 따라 혹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체능계열 남자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 남학생들보다 부모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과 학년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부양의식을 예측하는 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학생에서만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반면 전공계열은 남학생의 경우만 부모부양의식의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남녀별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두 변수간에 선형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7). 남학생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과 전체 부모부양의식($r=.50$)과 3하위 영역($r=.27\sim.39$) 모두

에서 매우 유의한($p < .001$)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여학생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과 전체 부모부양의식($r=.25$)과 3하위 영역($r=.14\sim.23$)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남학생보다는 더 낮은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남녀별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남학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은/도리 부양의식에 매우 유의한 영향($b=.66$)을 미치어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보은/도리의 부양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보은/도리 부양의식을 16%설명하였다. 여학생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은/도리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b=.22$)을 미치어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보은/도리의 부양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은/도리 부양의식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설명력은 2%뿐이었다. 즉 보은/도리 부양의식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여학생에서보다 남학생에서 더욱 중요한 변인이었다.

남학생($b=.54$)과 여학생($b=.33$) 모두에서 가족주

<표 7> 가족주의 가치와 부모부양의식의 선형상관관계

		부모부양의식	보은/도리	가족영속/화합	동정/보상	전체
가족주의 가치관	남학생	0.39***	0.34***	0.27***	0.50***	
	여학생	0.14**	0.23***	0.14**	0.25***	

p < .01 *p < .001

<표 8>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모부양의식의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보은/도리		가족영속/화합		동정/보상		전체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b	b	b	b	b	b	b	b
가족주의 가치관	.66***	.22**	.54***	.33***	.40***	.21**	.52***	.25***
F 값	59.9***	7.9**	42.2***	21.2***	25.0***	7.3**	108.9***	26.2***
상수	1.33	2.59	2.00	2.63	0.96	1.53	1.38	2.18
R ²	.16	.02	.12	.05	.07	.02	.25	.06

p < .01 *p < .001

의 가치관이 가족영속/화합 부양의식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화합/영속의 부양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영속/화합 부양의식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설명력은 남학생은 12%, 여학생은 5%로 보은/도리 부양의식과 마찬가지로 가족영속/화합 부양의식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남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학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동정/보상 부양의식에 매우 유의한 영향($b=.40$)을 미치었다. 여학생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이 동정/보상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b=.21$)을 미치어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동정/보상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보상 부양의식에 대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설명력은 남학생에서는 7%, 여학생에서는 2%이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전체 부양의식에서도 역시 남학생($b=.52$)과 여학생($b=.25$)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었다. 하지만 설명력에서는 남학생은 25%, 여학생은 6%로 남학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모부양의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아서 오늘날의 대학생은 가족중심적인 집합주의 가치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 같은 세대일지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가부장권(家父長權)을 지향하는 보수적인 가치를 보인 것은 여성의 가치의식의 근대화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이가 클수록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주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이유를 근거로 한 부양의식에서는 남녀의 성차가 없었다. 대학생은 가족의

영속과 혈연집단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도리이므로에 높게 반응하였으며, 부모를 동정해서라든가 재산상속이나 체면, 종교적 의를 위한 보상을 기대한 부모부양에는 낮게 반응하였다. 이는 부모를 부양하려는 표면적인 책임의식이나 행동의 동인(動因)으로서 부양이유가 아직까지는 도덕적이고 선(善)하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성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다는 것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성(性)이 중요한 변인이며, 이를 통제 한 상태에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만 순수한 영향력을 발견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변인 가운데 전공계열만이 남녀 모두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학년과 가정소득은 여자대학생에게만 가족주의 가치관을 설명해 주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에서도 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나서 부모부양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침을 제공할 때에 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연령과 학년은 여학생에서만 부모부양의식을 예측하는 변인인 반면 전공계열은 남학생의 경우만 부모부양의식을 예측하는 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남자대학생은 나이나 학년과 상관없이 부모부양의식수준이 일정하나 여학생은 저학년때는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낮다가 나이가 먹어 감에 따라 혹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부양의식이 높아졌다.

다섯째, 대체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부양의식이 높을수록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고취시켜야 하겠다. 남성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여성보다 훨씬 높아 가족주의 가치관은 남성의 부모부양의식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여성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모부양의식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나 부모부양의식은 남성과 여성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에게 있어

서 가족주의 가치관 외에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인이 존재함을 시사함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김송애 · 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9권 2호, 303-321.
- 2) 김순옥 · 조희선 · 유경희 · 유현주 · 이나미(1995). 가족이기주의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3권 2호, 68-77.
- 3) 김일명 · 김병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7권 1호, 59-77.
- 4)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 교문사.
- 5) 박재간(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회지 제 5권, 54-61.
- 6)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3호, 129-148.
- 7)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6권, 101-120.
- 8) _____ · 이신숙(1991). 농촌 기혼여성 노부모 부양의식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회지 제 11권 2호, 191-209.
- 9) 성규탁(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9권 28-43.
- 10) _____(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11권 2호, 251-273.
- 11) _____(1991).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회지 제 14권 1호, 50-68.
- 12) 옥선화(1978). 도시주부의 효도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제 9호, 263-277.
- 13) _____(1986). 가족주의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4권 3호, 143-153.
- 14) _____(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8권 3호, 161-170.
- 15) 이가옥(1990). 노인부양체계 및 노인부양지표의 개발. 한국노년학회지 제 10권, 146-162.
- 16) 이신숙 · 서병숙(1993). 부양자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13권 1호, 39-54.
- 17) _____ · 신호식(1988). 기혼여성의 부모부양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 33권, 29-52.
- 18) 이동원(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52집, 229-253.
- 19) 이정덕(1985).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3권 2호, 171-186.
- 20) 이형실(1992). 노부모 부양경험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12권 2호, 41-50.
- 21) 이희자 · 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2호, 117-128.
- 22) 전길양 · 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한국노년학회지 제 13권 1호, 17-37.
- 23)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회지 제 10권, 105-123.
- 24) 지교현(1989). 경로, 효친 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그 현대적 의의. 전통 논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3-278.
- 25)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의식과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6호, 55-69.
- 26) 한은주 · 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회지 제 14권 1호, 84-94.
- 27) _____ · 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2호, 373-383.
- 28) 허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지 제

- 8권, 89-106.
- 29) Elaine M. Brody, Sandra J. Litvin, Steven M. Albert, and Christine J. Hoffman(1994). Marital status of daughters and patterns of parent care.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Vol. 49(2), 95-103.
- 30) Gary R. Lee, Jeffrey W. Dwyer, and Raymond T. Coward(1993).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 Demographic factors and same-gender pre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Vol. 48(1), 9-16.
- 31) Lee,G., & Ellithope,E(1982).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17-224.
- 32) Walker, A., & Pratt, C.(1991). Daughters help to mothers : Intergenerational aid versus caregiv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